

국가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 축하 메시지

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제가 취임하기 직전인 작년 1월 25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전산망이 멈추고 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. 이제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덜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

지금은 정보통신의 시대입니다.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 활동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. 특히 사이버 공간은 아주 민감한 신경조직처럼 어느 한 곳이 상하거나 무디어져서도 안 됩니다. 그런 만큼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.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은 물론 인권, 문화, 복지 등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상의 위협을 조기에 알리고, 필요한 대응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합니다. 그래서 세계적인 IT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최고수준의 사이버 안보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보통신강국, 지식정보

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
국가정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,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